화순군의회 풍력발전 규제 완화 조례 통과 … 주민 반발

주거지 이격거리 10가구 이상 2㎞→1.2㎞·10가구 미만 1.5㎞→800m로 대폭 완화…대책위, 의원·업체 고발

화순군의회가 주거지 인근에 풍력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역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화순군의회 A의원과 사업자인 B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27일 화순군 동복풍력발전시설 주민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화순군의회는 지난 25일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풍력발전소와 주거지 이격 거리를 완화하는 내용의 '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수정 의결된 개정안에는 풍력발전소를 건설할 때 10호 이상 거주지에서 1.2㎞, 10호 미만 거주지에서 800m 이상 떨어지도록 규정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선 의원은 10호 이상 거주지에서 800m, 10호 미만 거주지에서 500m 이상 거리를 두도록 정했다가 주민들이 반발하자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치며 수정됐다.

기존에는 각각 2㎞, 1.5㎞ 떨어지도록 제한했다. 화순군은 지난해 8월 조례 제정 당시 전문기관 용역을 근거로 '500m까지는 소음피해 등으로 주민 이주를 검토해야 하고, 1.5㎞까지는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거리제한 규정을 마련했었다.

결국 조례안은 수정을 거치며 10호 이상은 2㎞에서 1.2㎞로, 10호 미만은 1.5㎞에서 800m로 주거지 이격거리가 대폭 완화됐다.

조례 통과에 반대하며 방청석에 앉아있던 주민들은 조례 통과를 막기 위해 회의장 안으로 진입, 의사봉을 빼앗으려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조례안이 통과되자 사업 예정지로 꼽히는 동복면과 인근 주민 70~80명은 화순군의회 앞에 모여 규탄집회를 열었다.

동복풍력발전시설 비상대책위원회는 "풍력업체 앞장이로 나선 몇몇 의원들이 7개 마을이 자리한 동복면 밤실산에 발전소를 짓도록 돕기 위해 기습적으로 2차례나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발전소 유치 주민찬성의견서를 조작하는 등 발전소 사업에 적극 개입하고 있는 의원들을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원회는 지난 24일 A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사업자인 B업체를 사문서 위변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A의원이 풍력발전소 건설에 찬성하는 주민동의서를 받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동복면 이장 3명에게 100만원씩을 준 사실이 있다"면서 "이들 이장으로부터 확보한 관련 진술 등 각종 증거물을 검찰에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멀리서 보니 애틋하다 … 장성 황룡강 해바라기 만개

코로나19 여파로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는 취소됐지만 황금빛 해바라기 물결은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룡강 연꽃정원 일원에 식재한 10만 송이의 해바라기가 올 추석 연휴기간 내내 활짝 꽃망울을 터트릴 것으로 예상된다. 〈장성군 제공〉

나눔 있는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1억원 상당 건강식품

㈔희망을나누는사람들, 장성군에 기탁…한사랑FS 등도 동참

장성군은 추석을 앞두고 사회단체, 기관, 주민들의 나눔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희망을나누는사람들이 지난 26일에는 1억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장성군에 기탁했다. 〈사진〉

㈔희망을나누는사람들은 2007년에 설립된 사회복지 후원기관이다. 기초수급자,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을 후원하고 있다.

앞서 24일에는 장성지역 기업의 기부가 이어졌다.

㈜한사랑FS 이찬희 대표가 공공실버주택 누리타운을 방문해 750만원 상당의 식품세트를 기탁했다. LH 광주전남지역본부도 이날 365생 햅쌀 5kg들이 180개를 누리타운 주민과 독거노인 주거시설 '사랑의집'에 전달했다.

북하면 청년회는 갈마마을회관에 냉장고, 밥솥, 선풍기 등 15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기증했다. 갈마마을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를 입은 지역이다. 또 북하면 청년회는 중평2리 용산마을 진입로에서 풀베기 자원봉사도 실시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아! 청춘… 그때 그 시절을 아십니까

강진 중앙로상가에 근대거리 '극장통길' 조성
의상 무료대여 등 남녀노소 문화체험장 각광

강진 극장통길이 새로운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강진군은 지난해 선정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중앙로상가를 근대거리인 '극장통길'로 새롭게 조성했다고 27일 밝혔다.

극장통길 일원에 근대의상 무료체험장, 근대거리 포토존, 관광객 상품권 증정 행사, SNS 업로드 이벤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조성해 운영을 시작했다.

근대의상 무료체험장은 매주 토·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근대의상과 추억의 교복을 무료로 입어 볼 수 있으며 극장통길에서 기념촬영을 할 수 있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색 문화체험 장소로 떠오르고 있다.

포토존은 강진의 옛 점포와 추억의 물건들로 꾸며져 있어 가족, 연인, 친구들이 함께 낭만과 추억을 만끽할 수 있는 이색공간이 되고 있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청춘 극장통길만의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해서 확보해 방문객 증대를 이끄는 이색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군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중앙로상가를 근대거리인 극장통길로 새롭게 꾸몄다. 〈강진군 제공〉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남몰래 기부한 배 상자

화순서 20박스…재경화순군향우회 1000만원 상당 구호품

화순군은 추석을 앞두고 신원을 밝히지 않은 기부천사들의 온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4일 새벽 화순읍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입구에 7.5kg짜리 배 20박스가 놓여 있었다. 이 기부자는 2018년 설 때부터 명절마다 익명의 메시지만을 남긴 채 과일과 배 등을 메모와 함께 화순읍 행정복지센터에 두고 가고 있다.

기부자가 남긴 메모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예전과 달리 넉넉하게 기부하지 못해 마음이 무겁다"며 "그럼에도 조금이나마 마음을 나눌 수 있어 감사하다"고 밝혔다.

재경화순군향우회는 1000만원 상당의 이재민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사진〉

대한한돈협회 화순군지부는 지난 21일 돼지고기 784kg(3920인분)을 화순군에 후원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은 4개월 동안 월급 10~30%를 모은 성금 500만원을 재난 극복을 위해 써달라고 기부했다. 화순백신산업특구에 있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헬스케어연구소는 하나노인복지센터에 후원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